

김재철에 면죄부 준 임진택은 배임의 공동정범



MBC 장악용 낙하산, 이종성·도덕적 해이 화신

문화방송의 정관 29조 1항은 감사의 직무로 본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 소홀이나 각종 비위 행위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것이 감사 본연의 소임이자 업무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감사에게는 대표이사 외에는 좀처럼 갖기 어려운 여러 권한들이 부여돼 있다. 감사는 필요할 경우 자회사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도 청구할 수 있다. 의견권은 없지만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감사는 비리 규명의 최고 책임자

나아가 정관 28조는 이사회가 회사에 현저하고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과 문책에 대한 감사의 포괄적 권한과 최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대표이사 역시 감사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상징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임진택의 직무유기는 파면될 수준

정관과 이사회 규정이 감사직에 부여한 이러한 권한과 소임을 놓고 볼 때 현재 문화방송 감사인 임진택씨의 직무 유기는 당장 파면을 당해도 별다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면죄부를 발행한 엉터리 부실 감사의 총지휘자인 임진택은 정권의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인연도 없던 MBC에 감사로 투하됐다. 이후 그가 한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감사 본연의 직무는 유기하고 방치하면서도 봉급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자 화신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감사 임명 전부터 뒷말 논란 무성

공인 회계사로 회계법인에 몸담았던 임진택씨는 김재철이 본사 사장이 된 뒤인 지난 2010년 6월 MBC 최초의 외부인사 출신 감사로 선임됐다. 당시 방문진 여론 인사들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업적이나 인사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MBC를 제 3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평계로 임진택 감사 선임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감사로 선임되는 바로 그 단계부터 임진택씨를 둘러싼 논란과 뒷말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그친 적이 없다.

소망교회 인맥 엮고 MBC에 입성

먼저 임기가 한참이나 남아 있던 임씨의 전임 감사가 김재철의 본사 사장 부임이후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지역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임씨를 선임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했다. 임진택씨가 지원 서류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의 집사임을 명시한데다 소망교회 장로에 지원했다는 것까지 알려지면서부터는 고도의 업무 독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의 감사를 맡기에는 지극히 부적절한 인물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영남-소망교회 인맥을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전형적인 보은 인사란 비판과 함께 임진택 감사 선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재철을 사장으로, 후배인 김재우씨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소망교회 인맥인 임진택씨를 감사에 투하함으로써 현 정권의 MBC 장악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려는 포석으로 여겨졌다. 임진택씨는 결국 작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공기업 낙하산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영방송 감사로는 철저한 부적격자

정권이 MBC에 떨어뜨린 낙하산 정령군으로서는 그야말로 손색이 없는 인물이지만 MBC 감사로서는 철저한 부적격자인 임진택 씨는 MBC 감사가 된 뒤에는 사규가 정한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월권과 직무유기를 반복해 구성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무려 6달 동안 시간을 계속 끌다가 김재우 방문진의 임기 종료에 맞춰 김재철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엉터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임진택씨는 부실 감사 전반을 지휘하면서 최종 감사 보고서를 김재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도록 실무진을 압박하고 다그친 의혹도 받고 있다.

법인카드 감사도중 난데없는 런던외유

임진택씨는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기간 도중 김재철의 배려로 난데없이 런던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기도 했다. 지난 6월의 <회사특보>에 따르면 임진택 감사는 6월 21일부터 닷새간 런던을 방문해 본사주최 <Korean Culture Festival>을 관람하고 스태프들을 격려했다. 올림피아 방송 사전 설치 팀 소속 직원들도 격려할 것이라고 했는데 임씨의 런던 행이 사규가 정한 감사의 고유 업무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감사무마 대가로 한 뇌물성 외유 의혹

사측이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감사 계획대로라면 임진택씨의 런던 외유는 김재철 등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그야말로 눈앞에 두고 있던 시점에 이뤄졌다. 감사보고서가 대면조사 시작 시점으로 적시한 6월 말은 임진택씨가 런던 외유를 마치고 돌아온 바로 직후였다. 임씨의 런던 외유는 감사 대상이었던 김재철로부터 감사 무마를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자 행동인 것이다. 임진택씨가 공과 사를 분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리 분별력도 모자라는 인물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임진택씨가 공영방송 감사에 손뚱만큼도 어울리지 않는 부적격자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김재철 측근이면 무조건 감싸고 봐주기

김재철의 측근이거나 같은 편으로 분류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감싸기로 일관하면서도 공영방송 요구나 파업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이중성도 임진택이 감사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유이다. 임진택씨는 MBC 나눔의 대표이사이던 작년에 외주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사를 받게 된 조규승 현 경영본부장에 대해 한 달이란 시간을 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법인카드 감사처럼 시간만 흘러보내면서 사건을 흐지부지하려 한 것이다. 조규승 경영본부장이 파업기간 조합 집행부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무더기 소송 폭탄을 실행한 주역 중 한명인 점 때문에 '김재철의 측근을 봐주려는 몰타기 감사였다'는 비판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규 근거 없이 인사위도 참석 월권행동

임진택씨는 그러나 파업기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상식적인 초강경론을 줄기차게 주도했다. 정치적 잣대에 근거한 철저한 이중성보다 더 큰 문제는 임진택씨가 이 과정에서 사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있을 수 없는 월권행위까지 일삼았다는 점이다.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인사규정 40조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인사위원의 범위를 아주 소상하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어디를 봐도 감사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라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택씨는 파업기간 열린 상당수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파업조합원들의 소명 발언을 중단시키는가하면 때로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고압적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임진택씨가 뺨질나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징계에 관여한 일은 언론보도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임진택씨의 인사위원회 참석은 그가 관여한 모든 징계의 적법성까지도 따져볼 수 있을 정도로, 사규에서 그 어떤 근거 조항도 찾을 수 없는 월권 행동인 것이다. 정상적인 회사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두고두고 엉터리 감사 책임지게 될 것

최근까지도 임진택씨는 월요 점심총회와 피켓팅 등 조합의 업무 복귀투쟁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경위서 제출과 징계 회부를 집요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방송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공영방송 회복 투쟁과 노조 활동을 말살할려는 이명박 정권의 밀명을 받고 MBC에 내려온 '특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김재철의 연명을 위해 엉터리 부실감사까지 서슴지 않은 임진택씨가 더 이상 MBC 감사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 엉터리 감사를 총지휘한 것으로 임진택씨는 김재철의 배임죄에 공동 정범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공표했다. MBC를 망치려고 현 정권이 김재철, 김재우와 함께 투하한 현 정권의 총견 임진택은 두고두고 이번 엉터리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악명 높은 컨택터스 MBC 투입경위 의혹 증폭

김재철은 용역강패까지 불러들인 전 과정 밝혀야

김재철이 지난 3월 초 MBC에 불러들인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충격적인 불법 활동상과 폭력행위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김재철이 이들을 MBC에 투입한 진의와 투입 결정이 내리진 경위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방탄복을 착용하고 곤봉과 진압 봉에다 독일제 물대포까지, 그야말로 중무장한 컨택터스 소속 용역 직원들은 최근 안산 반월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 SJM 공장의 쟁의 현장에 투입돼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휘둘러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SJM외에도 컨택터스의 용역들은 투입되는 분쟁 현장 곳곳마다 살벌한 폭력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폭력유도 비열한 음모 가능성 농후

폭력 행사가 컨택터스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주된 상품이었다는 점에서 김재철이 굳이 이들을 MBC에 투입한 저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질서 있게 진행돼온 MBC 파업 현장을 용역 강패들을 시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뒤 노조에게 폭력을 유발했다고 뒤집어씌우려는 불순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재철은 5월과 6월의 파업기간 동안 갖은 수단을 다해 조합과 파업 조합원들을 폭력세력으로 매도하려는 야비한 중상 비방과 모략극을 서슴지 않았다.

김재철과 컨택터스 관계도 의혹 증폭

잔인한 폭력 행사 외에도 컨택터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경호를 담당할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컨택터스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 행사에서 당시 서울 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 행사는 서울문화재단 주최여서 행사의 경비 담당 업체로 컨택터스를 선정한 주체 역시 서울문화재단이었다. 당시 서울문화재단 이사였던 김재철과 컨택터스와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컨택터스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도 김재철이 컨택터스를 MBC를 투입한 경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김재철이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살다시피 상주하면서 캠프 인사보다도 더 캠프인사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증언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투입과정 해명하고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김재철은 컨택터스를 MBC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정권 측 인사를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상이나 조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회사 내부 논의만으로 컨택터스를 투입했다면 야만적인 폭력으로 악명이 자자한 용역강패들을 투입할 것을 맨 처음에 건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 김재철의 야비한 조합 탄압책동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법무법인 광장 노무법인의 관련성도 규명돼야 한다. 조합은 김재철이 이 모든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컨택터스의 MBC 투입 결정에 대해 뭔가를 반드시 숨겨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MBC 창사이후 처음으로 용역강패들까지 투입한 김재철의 야만적인 결정의 이면에 정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김재철은 용역강패 투입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구성원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김재철 일당, '작가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망발

오만하고 무지한 태도, 방송작가 분노에 기름

김재철 일당의 무지한 해명과 오만한 태도가 <PD수첩> 작가 해고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우고 말았다. 김현종 시사제작 국장은 그제(1일) 사내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PD수첩> 작가 해고사 '정치적 해고'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프리랜서'인 작가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 작가사회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측이 어제(2일) 김 국장의 글을 회사특보 1면에 게재하며 '프리랜서는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MBC의 공식 입장처럼 밝힌 것이 신분-계약문제에 관해 민감한 전체 방송작가의 역권을 건드리고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형국이다.

계약서 존재도 모른

<PD수첩> 국장 부장 이번 사태로 김현종 시사제작국장과 배연규 <PD수첩> 팀장은 단순관리자로서도 자질이 없음이 확인됐다. 전원 해고 소식에 항의 방문한 작가들이 '계약에 의해 고용된 작가들을 어떻게 통보도 없이 해고하냐'고 따지자 두 사람은 매우 당황하며 계약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2010년까지 <PD수첩> 작가들은 사장을 대리한 국장 또는 팀장과의 서면계약서에 의해 고용되는 상황이었지만, <PD수첩> 탄압에 이상했던 윤길용 전 국장과 김철진 전 팀장은 작가들과 서면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가들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기에 기존의 계약서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법적효력을 갖게 된 상황이다.

파업기간 중 자행된 시사교양국 해체과정에서 보직을 받은 김 국장과 배 팀장은 PD를 쫓아내고 작가를 해고하는 등 <PD수첩> 죽이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프로그램의 세부운영사항에는 전혀 무지했음

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양심도 검열하겠다는

김현종 망언 김현종 국장은 작가들이 '불편부당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핵심적인 해고의 사유로 들었지만 작가들이 제작한 <PD수첩> 프로그램이나 대본에 나타난 불공정성, 편파성의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해 반목을 사고 있다. 특히 '해고된 작가들의 문제점이 덕담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김 국장의 구차한 변명은 사람들을 실소케 하고 있다.

MBC구성작가협의회는 어제(2일) 보도 자료를 내서 "방송작가가 갖춰야 할 공정성과 중립성은 프로그램에 관한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작가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노조 파업을 저지한 것이 프로그램 공정성과 무슨 관련이 있던 말인가" 반문하며 김 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명원자에 의해 '청와대 낙하산'임이 입증된 김재철이 '불편부당성'을 가진 사람인지, 시용PD 채용과정에서 '시사교양PD' 누구와 친한가? 라고 물은 사상검증식 질문은 '중립성'을 지킨 것인지 김현종 국장의 대답이 궁금하다.

방송작가협회, '중대 결정' 임박

<PD수첩> 대체 작가 거부 서명에 참여한 작가가 벌써 900명에 이른다. 드라마 작가에 이어 예능작가들의 지지 연대 발언도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방송작가 협회는 김재철 사장이 이금림 이사장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일 MBC를 직접 항의방문 할 것이며 그마저도 거부당하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호미'로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 대한민국 '가래'를 다 모아도 막을 수 없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일 사고, 천덕꾸러기 된 MBC 올림픽 방송

MBC의 올림픽 방송이 동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올림픽 개막 이후 지난 일주일동안 MBC가 계속 저지른 크고 작은 사고와 논란 때문이다. MBC는 개막식의 절정이자 피날레인 매가트리의 공연을 끊어버리고 광고를 트는 어이없는 돌출행동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개막식 공동 MC 배수정의 "영국인이어서 자랑스럽다"는 실언까지 겹쳐 동네북이 됐다. 뿐만 아니라 첫 날 뉴스데스크에서 양승은 아나운서의 상복, 모자 패션과 박태환 선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적절했다는 등이 연이어 논란이 되더니 급기야 다음날엔 뉴스데스크의 '조작방송' 파문까지 터지면서 시청자들의 지탄대상으로 전락했다. 올림픽 방송 전에 김재철 측이 입에 침을 튀겨가며 홍보했던 '승리의 MBC' '시청률 1위 달성' 목표는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순발력 떨어지는 뒷배대응 연속

두드러진 논란에 가려 제대로 부각이 되지 못한 어이없는 사고들도 속출하고 있어 '올림픽 방송'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청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불만중 하나는 MBC '올림픽 방송'이 시청자들이 그 순간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영상과 장면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격 진중오 선수의 첫 금메달 획득 소식과 장민을 방송 3사중 가장 늦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다른 채널로 향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일은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을 딴 31일 새벽에도 반복돼 박 선수의 경기 후 소감을 담은 인터뷰가 당일 오전이 지나가도록 방송되지 못했다. 축구 경기 중계가 예정돼 있었던 탓도 있지만 응원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전 방송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금메달이 쏟아진 1일 밤의 긴박했던 장면들을 발 빠르게 전하지 못한 점도 순발력 부재의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자막사고까지

빈발
어처구니없는 자막 사고가 빈발하고 있

는 점도 채널의 공신력과 스테이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뉴스와 경기 중계 등에서 '양궁'을 '양궁'으로 '평영'을 '평형'으로 표기한 어이없는 자막들이 곳곳에서 발견돼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일이다. 1일 밤 한국과 가봉 친 축구 경기 중계 도중에는 가봉선수의 부상에 대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호재입니다"라고 언급한 해설위원의 멘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모든 일들은 올림픽 방송 제작과 취재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을 단지 파업 가담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김재철이 현업에서 배제하고 축출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참사였다. 시청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데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파업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던 김재철 일당들이 자초한 결과인 것이다.

개선 노력대신 파문

축소에만 급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측은 시청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대신 파행들을 변명하고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유례없는 <뉴스데스크> '조작방송' 파문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을 뿐더러 양승은 아나운서의 모자 논란에 대해서는 황용국 보도국장 등 보도국 수뇌부가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한 결과라며 흡족해했다는 황당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올림픽 방송 일주일을 평가하며 한 신문은 KBS '안정' SBS '무난' MBC '미숙'이란 제목까지 달아 MBC의 파행 방송을 비판했다. 조정은 올림픽 방송 첫날부터 사장인 김재철이 돌연 휴가를 떠나버린 뒤 간부들이 직무에 소홀한 점도 파행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사장이 제 할 일을 다 하지 않는다 해서 현업의 간부들까지 '올림픽 방송'이란 회사의 대사를 소홀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합은 향후 올림픽 방송을 주시하면서 이 모든 방송 파행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다.